

백제불교초전지 성역화 1년 남았는데...

'만불전' 등 핵심사업은 '제자리'

백제불교 최초 전래지로 알려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좌우두 일대를 성역화 하는 사업이 완료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기반공사만 진행되고 핵심사업은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백제불교 최초 전래지 기념사업은 지역 기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문화체험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97년 3월부터 170여억원을 들여 1만 3천여평의 부지에 마라나타상, 만불전, 만다라 기념광장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영광군과 지역불교계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두백스님, 김봉열 영광군수)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 재원없어 올4월에야 설계끝내

영광郡의회, 추가예산집행 거부조짐

영광군은 2001년 6월부터 진립로 개설, 부용루 건립, 전사관 건립, 기념공원 조성 등 3년동안 1백여억원을 투입, 성역화 기반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불교계가 담당할 마라나타상과 만불전 건립이 지지부진해, 현 상태로 추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2004년 말까지 마무리 되기에 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민자유치 부분인 불교계의 재원이 조달되지 않자 영광군 의회에서는 추

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불교계의 마라나타상 조성과 만불전 건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50여억원에 달하는 재정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4월에야 마라나타상과 만불전의 설계를 마친 불교계는 만불전에 봉안할 원불(願佛) 조성 비용으로 1구좌당 50만원의 성금 모금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마저 참여 실적

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영광군과 지역 주민들은 백양사를 비롯해 지역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범불교적으로 동참해 기념사업이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청 관계자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에는 지역불교계의 힘만으로는 힘겨워 보인다"며 "이런 때 불자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동참안내(061)352-8097.

후원계좌:우체국 500264-02-0212057(예금주 백제불교초전지) 백봉열 기자 bypark@buddhapia.com

수리사 인근에 터널4개

수원~광명 서부고속도로

천년 고찰인 군포 수리사(주지 성견) 인근에 터널이 뚫릴 계획이어서 환경분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터널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오는 2005년 착공할 예정인 수원~광명간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노선의 일부로 산본신도시 인근의 수리사에 터널 7곳(4500m)과 교량 5곳을 건설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수리사 인근 주봉인 수암봉 구간에 4개의 터널(1770m)이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자연 및 생활환경 파해가 우려된다.

남동우 기자

SK시주금 순수치않으면 반환

승가사, 손길승회장에 내용증명 보내

SK측 "돌려 받을수 없다"

검찰이 SK그룹의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시주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승가사가 최근 SK그룹에 시주금이 순수하지 않다면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가사 손철수 관리실장은 11일 "이번 사건의 판결이 외압에 의한 시

주도 결론난다면 10억원의 시주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SK 손길승 회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시주금은 이미 비용 처리된 것이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은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북한산관통노선 사전포석 의혹

"투표결과 보고서 누락, 공청회 요식행위 불과"

북한산 관통도로 노선 최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관통을 위한 사전포석 의혹이 일어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첫 번째 근거는 5일 노선제검토위 마지막 회의에서 나타난 투표결과와 보고서 명시 여부. 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비관통노선 6명, 관통노선 5명으로 볼 수 있으나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단순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명시된다.

두 번째 근거는 19일 예정인 북한

산국립공원 관통구간 공청회 참여인사 공정성 여부. 공청회 토론자 과반수 이상이 건교부측 인사로 추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연대는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재검토위 활동 결과물인 투표결과와 보고서에 기록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개 불교단체도 13일 "국무총리실이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를 반한·반불교 정부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남동우 기자

한반도 평화통일 국제학술대회 열려

미·유럽등서 70여명 참석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국제적 협의를 형성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회'가 열렸다.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와 은겨레순장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국제평화대회에는 14일부터 16일까지 워싱턴 교수(동경대), 박한식 교수(조지아주립대), 돈 오버도퍼 교수(존스홉킨스대) 등 미국과 유럽, 아시아 활동가와 학자 70여명 참석했으며, 도라산역과 성곡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분행사

통일기행, 국제학술회의 등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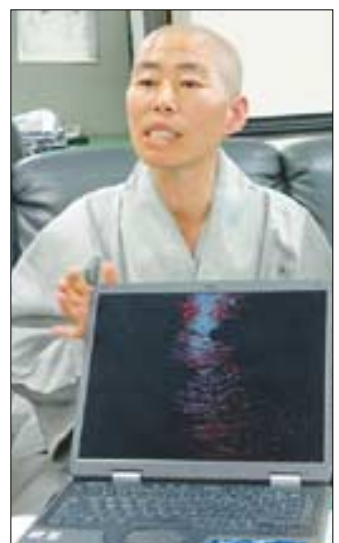
특히 16일 오전 9시부터 성대 600주년 기념관(조병두 홀)에서 열린 '6·15공명선언 발표 3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강만길 상지대 총장과 라이너 베르닝 독일코리아정보센터 소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과 유럽, 아시아, 한반도' '북핵 문제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대' 등 3가지 주제로 나뉘어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남동우 기자

"내원사·천성산환경대책위 배제된

경부고속철 합의내용 수용 못한다"

지울스님 기자회견



의견 내용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지울스님은 또 "합의서에 명시된 45일간(2003. 5. 12-6. 30)의 기간으로 천성산·금정산의 생태, 지하수, 지질, 소음, 진동, 터널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내원사에 제출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호터널) 통과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정밀조사 계획>(2002. 6)에도 천성산의 현장 생태, 지질 조사를 위해 1년 4개월의 기간을 제안했던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동석한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경부고속철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부장관 등을 고발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선 나눔 콜택시
1588-5532

지렁이 이용·음식쓰레기를 퇴비로 정토회, 실험가정 모집

정토회 산하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2차 실험가정을 모집한다.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받는 실험가정은 서울 50가정 이내, 부산, 대구, 대전, 청주, 마산, 광주지역 각 10가정 이내다. 실험가정으로 선정되면 매일 관

찰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를 이용해 퇴비화 하는 것으로, 지렁이 똥인 분변토를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www.ecobuddha.org, 02-587-8997)

남동우 기자

부처님 기쁘기 승민인 우리절

이라크 전쟁과 사스·알제리 지진 희생 영가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위로.....

- ▶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 ▶ 지금도 SARS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 최근에는 알제리 지진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의 의거 불우한 영가를 전도합니다.
- ▶ 모두 오셔서 유행을 달리아신 국제영가님들에게 짜 안잔씩 올립니다.
- ▶ 행사안내
 - 일 시 : 2003년 6월22일 일요일 오전10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 큰법당
 - 법공양 : <일원곡> 제5권 (동봉스님의 40번째 책)
 - 우 원 : 동선외, 계운행복, 목련사랑, 신도외
 - 결집일 : 동봉스님 출판기념회

※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 제5권과 목련사랑에서 보시한 배건을 나누어 드립니다.

장소: 곤지암 우리절
www.urijeol.com
우리절.net
Tel: (031)763-4674~5